

조연현의 한국 근대문학사 인식 방법

양 영 길*

차례

I 서론

II 한국 근대문학사 인식 방법

1. 문학사관의 근간과 인식 방법
2. 근대성 인식과 시대구분 방법
3. 『한국현대문학사』 서술상의 문제점

III 결론

I. 서론

조연현(1920~1981)은 『현대문학』지의 창간(1955)·주간·경영, 『한국현대문학사』(1956) 저술, 동국대학교 교수(1961~), 한국문인협회 이사장(1973~) 등으로 한국 현대문학사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연현은 1945년 광복과 함께 『예술부락』을 창간하고, 주로 시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발을 들여놓게 되고, 1946년에는 김동리 서정주 조지훈 박목월 등과 청년문학가협회 전국문필가협회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등의 발족에 참여하면서 평론을 시작했다.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박사

그의 평론은 1930년대 전반기 문단의 주류를 이룬 모더니즘 문학 운동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또 광복 이후 순수문학 편에서 당시의 경색된 강단 비평과는 다른 방향에서 활동을 했다. 형식주의 이론에 바탕을 둔 최재서 등의 강단 비평을 거부하고, 김문집의 창조적 비평을 계승하고자 했다.¹⁾

같은 시기의 많은 비평가들이 형식주의 문학론을 들먹일 때도, 모더니즘 문학론이 만연한 때도 그는 그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지 않고 자기의 '생리론'을 그대로 고수하여 형식주의 비평과 마르크스주의 비평에 대하여 공격적인 비평에 전념하였다. 그의 문학사 서술 작업 또한 이러한 그의 문학 취향 및 시각을 바탕으로 서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조연현이 1954년 『문학과 예술』에 발표한 「韓國解放文壇十年史」와 1955년부터 『현대문학』에 연재하여 1956년 11월에 발간한 『韓國現代文學史』(제1부)를 중심으로 그가 한국 근대문학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구성해 나갔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한국 근대 문학사 인식 방법

조연현의 한국 문학사 서술은 전쟁 직후인 1954년 6월 「韓國解放文壇十年史」(『문학과 예술』)에서부터 시작되고, 1955년에 창간한 『현대문학』에 「한국 현대문학사」를 연재하여 1956년 11월에 제1부를 출간하면서 안화, 김태준, 임화, 백철에 이어 한국 문학사 서술의 맥을 이어 나갔다. 「한국해방문단 10년사」는 말 그대로 8·15 광복부터 시작하여 전쟁을 겪고 휴전 이후 1년까지의 문단사를 서술하였으며, 「한국현대문학사」는 1894년 갑오개혁에서부터 8·15 광복 이전까지의 문단사를 서술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문학사의 바탕이 되는 조연현의 문학사관은 어디에 있는가. 이에

1) 김시태, 「조연현 비평의 세계」(『현대문학』, 1986. 11), 100쪽.

대하여 살펴보자.

1. 문학사관의 근간과 인식 방법

조연현이 한국 근대문학사를 인식하는 근간에는 크게 두 가지가 그 바탕에 자리하고 있다. 그 하나는 국가에 대한 충의적 이념이며, 다른 하나는 서구에 대한 선망 의식이다.

우선 국가에 대한 충의적 이념은 전쟁 전후 체험을 바탕으로 쓴 「한국 해방문단10년사」(195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대한민국의 성립과 <문협>의 발족'을 서술하면서 '정부수립과 문화인총결기대회', '전향문인의 속출과 <문협>의 발족'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다음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자.

정부가 수립되고, 문화인총결기대회 이후로 문화계의 정세가 바뀌어져가고 하며 따라 모든 부문에 있어 사상전향자가 속출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본 의든 본의아니든 매국세력에 가담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충성을 맹세하고 보도연맹에 가입하였다.²⁾

또 이 글의 맺음말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기도 하다.

휴전과 함께 4286년 10월을 전후해서 거의 완전히 수도에 복귀한 우리의 전시문단은 환도준비기간으로서 4286년을 보내고 4287년의 신춘부터는 새로 창간된 『文學과 藝術』지와 『文化世界』 『文藝』 등의 문예 중심잡지의 발전과 함께 전의와 창작의욕을 더 한층 강화해가고 있다. 해방이후 10년의 세월을 잡어든 오늘까지의 우리 문단을 회고해 볼 때 이 10년의 기간은 해방된 한국문단을 새로이 개척하고 건설하는 일종의 문단형성기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의 우리 문단은 지나간 10년의 史實을 냉정히 검토분석하여 조국에 대한 한층더 강한 신념과 문학에 대한 더욱 강렬한 성실과 애정으로서 우리의 본분을 다 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³⁾

2) 조연현, 「한국 해방문단 10년사」(『문학과 예술』, 1954, 6), 142쪽.

위 두 내용을 보면 “매국세력에 가담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충성을 맹세하고”라든가, “조국에 대한 한층더 강한 신념과 문학에 대한 더욱 강렬한 성실과 애정으로서 우리의 본분을 다 하지 않으면 안될 것” 등을 내세워 한국 근대문학사를 사상과 이념이라는 반공이데올로기적인 국가관을 요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그가 늘 강조해 온 개성과 직관을 존중하는 ‘비평의 생리’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여기서의 ‘생리’는 마르크시즘의 정치주의 문학관에서 주창하는 비평의 과학화에 대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사상 이념의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문맹>의 내분과 순수문학진의 공세에 대하여 서술하는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문맹>과 우리쪽과의 최초의 본격적인 접전은 괴뢰부의 평론가인 김모와 김동리씨와의 대담으로서 시작되어 쌍방이 서로 총동원된 일대 난투로 진전되어 갔으나, 공통된 이론적 근거는 여전히 원칙적으로는 공산주의 대 민주주의 독재주의 대 자유주의였고 이것의 문학적인 표현으로서는 공리주의 대 순수주의, 정책주의 대 인간주의 계급의식 대 민족의식 공식주의 대 생명의식 등이었다.³⁾

여기에서 조연현이 한국 근대문학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론적 근거는 여전히 원칙적으로는 공산주의 대 민주주의, 독재주의 대 자유주의였고, 이것의 문학적인 표현으로서는 공리주의 대 순수주의, 정책주의 대 인간주의, 계급의식 대 민족의식, 공식주의 대 생명의식”이라는 대립과 분리, 그리고 배타적 인식의 근간을 드러내고 있다. 전쟁의 상처가 한국문학사에도 깊게 각인되어 있음을 알 수 대목이다. 이러한 좌우익의 대립적 인식이 1956년에 출간한 『한국현대문학사』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위의 글, 146쪽.

4) 위의 글, 140쪽.

다음으로 서구에 대한 선망의식은 서지(書誌)와 증언을 바탕으로 서술한 『한국현대문학사』(제1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가 이 저술의 서문에 밝힌 내용을 보자.

사실을 고백한다면 나의 문학에 대한 애정은 서구문학에서부터 생겨진 것이었다. 오래동안 나는 우리나라의 문학에 등한해 왔었다. 내가 우리의 문학에 특별한 애정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본저를 착수한 다음부터의 일이었다.⁵⁾

한국 근대사과정의 기형성을 가장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 하나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한국엔 「근대」가 없었다는 점이며 그 또 하나는 한국의 현대적인 과정을 엄밀히 분석하면 그것은 구라파의 근대적인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⁶⁾

이렇게 서구문학을 기준으로 하는 인식은 “본저의 제명을 『한국현대문학사』라고 한 것은 엄밀히 따진다면 서구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근대적인 과정이 우리의 역사 속에 없었기 때문”⁷⁾이라고 하면서 ‘근대’라는 어휘의 사용조차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 “세계를 대표하는 구라파의 문명”이 “민족과 국가를 초월해서 휩쓸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이러한 구라파 문명은 “한국의 특수한 조건을 돌보지 않고 하나의 회오리 바람처럼 한국의 근대를 이끌고 갔으며 한국의 근대 역시 자기의 역량 및 가능 불가능을 무릅쓰고 그러한 구라파에 숨가쁘게 매달려가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의 근대사적인 과정이 기형적으로 형성되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다른 도리가 없었던 것”⁸⁾ 등, 구라파 문명인 서구문학에 경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서구문학에의 경도는 한국 근대문학사를 시간적 후진성, 시대적 미숙성, 근대와 현대의 혼잡성, 정치적 암흑성 등 기형적으로 형성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기형적인 발전은 “한국

5)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제1부(현대문학사, 1956), 5쪽.

6) 위의 책, 24~25쪽.

7) 위의 책, 3쪽.

8) 위의 책, 23~24쪽.

의 근대문학 및 현대문학의 그모든 稚氣와 미숙과 혼돈과 불완전”과 같은 “한국의 근대사적인 과정의 특수성을 그 현실적인 조건으로 하고 생성되지 않을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것은 “한국 현대문학의 어쩔 수 없는 운명”⁹⁾으로 받아드리고 있다. 이러한 서구문학에 대한 경도된 자리에는 문단 중심의 한국 근대문학사 인식이 깊게 자리하게 되었다. 즉 사회의 기형성이 문단의 기형을 낳는다고 인식하고, 문학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문단 중심의 전문적인 작가에 의한 작품이라야 한다고 한국 근대문학사를 인식하고 있다. 이는 백철의 한국 근대문학사를 인식하는 사조사의 한 변형이라 할 수 것이다. 창가에 대한 서술 부분에서 보면 문단에 대한 의지가 짙게 깔려 있음을 볼 수 있다.

당시의 유행했던 창가가 문자화되기 보다는 구전으로 불리워진 것이 더 많았다는 사실과 창가의 작가가 전문적인 시인이나 문인이 아니라 개화한 민중의 지도층이었던 사실은 이러한 사정을 설명해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 당시의 신문이나 잡지에 게재되어있는 여러 창가들을 지금도 볼 수 있으나 그 대부분이 지방에서 투고한 무명인사의 작품이 아니면 지도층에 속한 사회인이 餘技로서 쓴 작품임을 보게된다. 이것은 창가가 의식적인 문학행위가 아니라 개화인의 일 유행적인 행위임을 가장 단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¹⁰⁾

위 인용 내용을 살펴보면, 문학 작품 중심으로 문학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문단과 그 문단을 이루는 전문가 중심으로 문학사를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문단을 이루고 전문적인 시인이나 문인이라야 서구문학의 수준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인식이다.

그러면 이러한 국가에 대한 충의이념과 서구에 대한 선망 의식을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그 구체적 인식방법으로는 한국 근대문학사를 불연속적으로 인식하는 이식문학론적 방법과 객관성

9) 위의 책, 32쪽.

10) 위의 책, 48~49쪽.

을 중시하는 실증주의적 방법을 들 수 있다. 우선 이식문학론적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자.

문예사조의 혼란상과 착란은 특수한 근대적 과정의 일 반영으로서 정확하게 말하면 '혼란과 착란의 현상' 이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적 현상' 이라고 설명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러한 혼란과 착란의 원인은 주로 한국의 근대적인 자각과 출발의 시간적인 후진성과 공간적인 미숙성에서 기원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2, 3세기나 앞선 구라파의 근대적인 과정을 그대로 모방하기에는 우리의 근대적인 출발은 이미 시간적으로 너무 늦었던 것이며 그것을 그대로 소화하기에는 우리의 근대적인 전통이 아직도 공간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시간적인 후진성과 공간적인 미숙성은 한국의 근대적 과정을 구라파의 축소판이나 그 보형과는 다른 특수한 성질을 갖게 하였다.¹¹⁾

즉,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볼 수 있는 '문예사조의 혼란상'은 한국적 현상이며, 그 원인은 '한국의 근대적인 자각과 출발의 시간적인 후진성과 공간적인 미숙성'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식문학적 인식은 한국 근대문학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부정하고 타율적이고 불연속적으로 인식하여 한국 근대문학사의 전개 과정을 뿌리깊고 자생력 있는 문학사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이식문학론적 인식을 어떻게 구체화하였는가. 조연현은 실증주의적 방법으로 한국 근대문학사를 관류하고자 했다. 그는 단순한 추상적 작업에 만족하지 않고, 방대한 서지적 자료에 의해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해 보이려고 했다.

우리가 역사의 저작을 요구하게 되는 것은 사료 그 자체가 아무런 생명도 가지고 있지 못한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거의 형해에 생명을 부여하고 그 부여된 생명의 약동을 표현해 내는 것이 역사가의 가장 본질적인 임무이며 사명이라야 한다. 이러한 임무와 사명을 완수하는데 있어서 일정하게 고정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될 수 있는대로 나의 주관적인 독단과 함께 지나간 사상을 그대로 재현해야 된다는 기계주의적인 사

11) 위의 책, 331쪽.

實主義를 경계하면 그만이었다.¹²⁾

그는 문학사적 사료를 과거의 형해로 남겨두거나 지나간 사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생명을 부여하고 그 부여된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표현해 내는 것이 역사가의 가장 본질적인 임무이며 사명으로 생각했다. 일제강점기 역사서술인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치 평가와 같은 주관의 개입을 철저히 금지해야 된다는 메마른 실증주의적 사관을 극복하고 약동하는 문학사를 서술하고자 했다. 이러한 약동하는 문학사는 '단순한 사실의 집적이 아니라 가치의 체계화'라고 그는 인식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인식을 구체화하기 위해 한국 근대문학사의 근대성과 시대구분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이에 대하여 살펴보자.

2. 근대성 인식과 시대구분 방법

조연현은 『한국현대문학사』의 서론 '한국현대사의 특수성과 한국현대문학의 현실적 조건'에서 '갑오경장의 근대사적 의미', '한국근대사의 미묘한 부자연성', '한국근대사의 후진성과 그 기형성', '근대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과의 혼성' 등, 이에 대한 논의를 좀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근대성'을 인식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연좌법과 노비제의 폐지', '부녀재혼의 자유', '銀本位 통화제실시' 등 무려 200여 항목에 달하는 근본적인 개혁을 목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그 의의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근대성의 의의를 문학 밖에서 찾고 있다. 그러면서 갑오경장 이후의 한국 사회를 "갓쓰고 가마타던 세상에서 양복입고 자동차를 타는 세상으로 전환"되었으며 "이 얼마나 혁신적인 근대의 여명인가."¹³⁾라고 감탄하고 있다.

그는 또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의 「근대」가 없

12) 위의 책, 4쪽.

13) 위의 책, 20~21쪽.

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현대적인 과정도 따지고 보면 구라파의 근대적인 과정을 벗어난 것이 아니었음”¹⁴⁾ 등 문학 외적으로 근대성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신문학운동』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가 언문일치에 있었다.”¹⁵⁾, “국한문혼용의 언문일치체의 문장 이것이 갑오경장이 결과시킨 가장 뚜렷하고도 가장 중대한 문화적인 표현이었다.”¹⁶⁾라고 하면서 문학 내적으로 근대성을 인식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근대성 인식은 임화의 『신문학사』(1939~1941)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서구적인 형태의 문학을 문제삼지 않고는 조선의 근대문학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성립하지 아니한다.”¹⁷⁾라고 하면서 문학의 형식적 측면에서 근대문학사를 규정하고 “무엇이 조선의 근대문학이나 하면 물론 근대정신을 내용으로 하고 서구문학의 장르를 형식으로 한 조선어 문학”¹⁸⁾이라고 단정하였다. 그는 ‘自由로운 散文을 形式으로 한 文學’, ‘市民精神’¹⁹⁾, 그리고 ‘商品資本의 蓄積, 産業資本에의 轉化, 商品流通의 擴大와 그것을 可能케 하는 生産力의 增大, 手工業의 獨立, 「매뉴팩처어」의 成長, 市民階級の 勃興 等”²⁰⁾ 사회경제의 발달상에서 근대성을 찾고 있다. 즉 문학의 형식에서는 ‘자유로운 산문 형식’과 ‘서구적 장르’, 문학의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정신의 내용’과 ‘사회경제의 발달상’으로 근대문학을 보고 있다. 그러면서 “결국 서구의 근대 사회제도를 수입 이식하지 않고는 봉건사회로부터 근대사회에의 전화, 과도(過渡)를 불가능케 한 조건을 만드는데 결착(結着)되는 것”²¹⁾이라고 사회경제 구조의 이식을 강조하여 사회경제를 바탕으로 근대성의 문제를 인식하였다.²²⁾

14) 위의 책, 26쪽.

15) 위의 책, 31쪽.

16) 위의 책, 46쪽.

17) 임화, 「개설 신문학사」(〈조선일보〉 1939.9), 『신문학사』(임규찬·한진일 편, 한길사, 1993), 18쪽.

18) 위의 책, 373쪽.

19) 위와 같음.

20) 위와 같음.

21) 위의 책, 26쪽.

또 백철은 『신문학사조사』에서 갑오혁신에 대하여 “소규모의 불란서혁명과 같은 것”²³⁾, “중요한 것은 이 갑오년간을 전후해서 광범하게 민간이 일어난 전국적인 혁신의 풍조”, “그것은 근대적인 것을 환영해 받아드리는 민중의 환성”, “근대적인 것은 당시 개항한 문호를 통해서 흘러들어온 것”²⁴⁾으로 서술하고, 그 근대성을 ‘쇄국의 문이 열리는 때, 봉건주의에 대한 선전이 포고, 동학란 등의 민중반란, 민간 혁신의 풍조’²⁵⁾, 시민계급이 지방할거, 봉건제 타파, 시민이란 신사회권의 경제적 유기관계, 민족주의의 생성”²⁶⁾ 등 문학 외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²⁷⁾

이로 볼 때, 조연현의 근대성 인식은 임화와 백철의 근대성 인식 방법에 얽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인식은 ‘근대화 즉 서구화’라는 임화의 소위 이식문화론적 인식을 탈피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한국 근대문학사를 불연속적, 타율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근간이 되고 말았다.

그 기점에 대해서는 “갑오개혁이 우리의 근대적인 그 최초의 출발이었던 것은 확실”하다고 한국문학사의 근대 기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의 근대적인 발족은 곧 우리의 현대적인 과정과 혼류되어졌던 것”²⁸⁾이라 하여 근대 기점에 따르는 불만족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또 근대의 개념을 “봉건적인 것과 구별되는 開明의 뜻”²⁹⁾으로 이해할 것을 주문하고 있기도 했다.

이렇게 1894년 갑오경장 기점을 근대 기점으로 설정한 예는 안확의 『조선문학사』(1922)에서부터 비롯되었으며, 임화가 조선일보에 연재한 「개설 신문학사」(1939~1941), 백철의 『조선신문학사조사』(1947~1949)로 이어

22) 양영길, 『한국 문학사 인식 어떻게 할 것인가』(푸른사상사, 2001), 315~316쪽

23) 백철, 『신문학사조사』(민중서관, 1955), 11~12쪽.

24) 위의 책, 12쪽

25) 위의 책, 11~12쪽.

26) 위의 책, 50쪽.

27) 양영길, 「백철의 한국 근대문학사 인식 방법」(『영주어문』, 2002)

28) 조연현, 앞의 책, 3쪽.

29) 위의 책, 19쪽.

졌으며, 조연현의 『한국현대문학사』(1956) 서술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근대 기점과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 근대문학사의 시대 구분을 어떻게 구체화시켰을까. 이에 대하여 살펴보자.

조연현이 『한국현대문학사』를 서술하면서 시대구분을 하는 방법은 문학 외적인 부분과 문학 내적인 부분의 분리 서술에 있었다.

‘서론 한국현대사의 특수성과 한국현대문학의 현실적 조건 / 제1장 근대문학의 태동 / 제2장 근대문학의 탄생 / 제3장 최남선과 이광수의 문학 / 제4장 근대문학의 전개’ 등 총 5장으로 구성하면서 서론에서 문학 외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정리하고 제1장부터 4장까지는 문학 내적인 부분으로만 서술하고 있다. 사회와 문학 현상을 하나로 보는 ‘일원론’을 경계하고 사회와 문학 현상을 분리하는 ‘이원론’적 인식의 근간을 드러내고 있다.

그 구체적인 명명 내용을 살펴보자.

제1장 근대문학의 태동

1. 근대문학태동의 역사적 배경과 그 문화적 환경 / 2. 창가의 성행과 그 근대문학적 요소 / 3. 신소설의 유행과 그 근대문학적 요소 / 4. 창가와 신소설의 문학사적 위치 / 5. 기타 근대예술의 태동과 문학의 주도적 위치

제2장 근대문학의 탄생

1. 신문학운동의 사회적 배경과 그 윤곽 / 2. 근대시의 출현 / 3. 근대소설의 등장

제3장 최남선과 이광수의 문학

1. 최남선의 공적과 그의 문학 / 2. 이광수의 문학

제4장 근대문학의 전개

1. 후기신문학운동의 개관 / 2. 문예사조의 혼류와 그 전개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학 내적인 측면에서 구성하면서 서론에서 제기한 문학 외적인 부분을 배제하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그는 근대문학 태동기는 갑오경장 이후 국치까지 15년으로 보고, 신문

학운동 전기에 해당하는 1910년대를 그 출현기, 신문학운동 후기에 해당하는 1920년대를 그 전개기, 그리고 근대적 차원에서 벗어나 현대성을 획득한 1930년대를 그 성숙기, 1930년대 말에서 1940년대 전반에 이르는 일제 말기를 쇠퇴기로 보고 있다. 그는 또 개화기에 태동한 이 땅의 신문학은 1920년대에 근대문학적 기초를 확립하고 1930년대에 현대문학의 수준으로 항상 발전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 1930년대를 전·후반기로 구분한 다음, 그 전반기는 첫째 과거의 동인지 문단시대가 사회적 문단시대로 변하고, 둘째 습작 문단이 작가 문단으로 바뀌고, 셋째 순수문학과 대중문학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시기이며, 넷째 그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전반기의 문학적 수준이 확대 심화되는 동시에 종래까지 근대문학의 성격 위에 놓였던 한국문학이 처음으로 현대문학적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30년대 문단에 나타난 이러한 변화야말로 이 시기가 한국 현대문학사상에 있어 획기적인 하나의 분수령으로 보았다. 초창기의 미숙한 근대문학이 1930년대 순수문학운동을 통해서 성숙되고 그 결실을 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 『한국현대문학사』 서술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이에 대하여 살펴보자.

3. 『한국현대문학사』 서술상의 문제점

조연현의 『한국현대문학사』 서술은 임화의 『신문학사』(1939~1941), 백철의 『조선신문학사조사』(1947~1949)에 이어 서술되었다. 임화의 문학사가 자료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미완의 문학사라고 한다면, 백철의 문학사는 '사조'에 억지로 짜 맞추는 방법론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미완의 문학사였다. 조연현에 와서는 앞의 문학사에서 보인 한계를 다소 극복하고자 했으나, 문단 중심, 잡지 중심의 방법에 함몰되어 한국 근대문학사의 범위를 왜소하게 만들고 말았다.

조연현은 『한국현대문학사』를 서술함에 있어 서구 문학의 교양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문학사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을 추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임화의 『신문학사』를 비롯해서 식민지 시대 비평가나 연구자들이 일반적으로 취했던 인식 태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 문학사의 준거를 가지고 한국 근대문학의 현상을 해석하고 평가 하면서 우리 문학의 전통이나 관습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근대문학사를 서구 문학의 이식 과정으로 보고, 서구 문학사의 기준과 안목으로 인식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국 근대문학사는 또 다시 문단사 잡지사로 축소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문학 작품이나 문학 현상 자체를 대상으로 문학사의 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문단과 그 문단 구성원인 문인 중심으로 인식하고 문학 잡지를 서열화하고 말았다. 백철의 사조사에 의해 재단되었던 한국 근대문학사는 또 다시 잡지 중심으로 재단되어 왜소해지고 만 것이다. 이러한 잡지 중심의 실증 자료에 의한 문학사는 최초주의에 함몰되어 발생론적 관점에서 각 시기 문학의 기원을 이루는 여러 원천들을 탐색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문단 중심 문학사 서술의 폐단은 문단 내와 문단 외를 구분 짓는 것으로 권외의 문학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한국 근대문학사를 빈곤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로 말미암아 제도권 문학이라는 성곽을 쌓게 되었으며, 성 밖의 문학이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아예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소멸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서술 태도는 문학사적 가치의 판단 기준이 공인성에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광수의 「나의 문단생활 30년」을 보며는 「소년의 비애」보다 9년이나 앞선 「소년」지 창간의 해인 4241[서기 1908]년에 이미 「원한」이라는 작품을 발표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 [그러나] 공인된 문학적 사실로서는 역시 「소년의 비애」를 한국최초의 근대소설로써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³⁰⁾

위에서 보듯이 문학 작품에 대한 재해석이나 재평가로 새롭게 인식하

30) 위의 책, 170~171쪽.

여 발굴해 내는 것이 아니라 문학사적 가치를 최초주의와 공인성에 두고 있다.

조연현은 사회와 문학을 분리해서 인식하는 이원론적 인식 방법에 기초하여 문학사를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문학을 시대나 현실 문제로부터 분리시켜 문학 자체만을 강조하여 한국 근대문학사를 관념론에 빠뜨리고 말았다. 그러면서 시종일관 순수문학과파의 입장을 취하여 순수문학과파의 문학적 위상을 높이 평가하고 그 예술적 가치를 정당화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계급문학운동에 대해서는 그 오류를 지적하는데 일관된 자세를 견지하였다.

한국 근대사의 전개 과정을 '기형성'에 두고, "한국엔 「근대」가 없었다는 점³¹⁾"을 내세워 식민사관의 하나인 봉건부재론과 같은 근대 부재론적인 인식을 드러내었다. 그러면서 "한국의 근대사적인 과정은 그 출발과 함께 구라파의 현대적인 과정과 교류"³²⁾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근대사 과정은 '근대'와 '현대'가 분명한 구분을 할 수 없어 "한국 근대사의 후진성과 기형성을 설명해 주는 기본적 개념³³⁾"으로 설명함으로써 '아시아적 정체성'이라든가, 식민지 시혜론, 또는 식민지 문명론적인 인식의 범위에 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또 그의 시대구분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태동'이니 '전개'니 '성숙'이니 '쇠퇴'니 하는 것들은 문학도 유기체와 마찬가지로의 과정을 밟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특히 '태동'이라는 용어는 앞 시대와의 불연속적 인식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조연현의 문학사 서술에 대하여 백철이 서술방법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신문학 초기의 창가·신체시·신소설에 대하여 문학사적으로 과다하게 평가하고 있다.', '둘째, 1920년대 전후를 근대사조의

31) 위의 책, 24~25쪽.

32) 위의 책, 26쪽.

33) 위와 같음.

도입기로 보고 이를 근대화의 문제로 보고 있다.’, ‘셋째, 비평가의 입장에서 한국의 현대문학의 내용이 빈곤하다는 말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첫째에 대하여 “초기의 신시에 있어서도 가령 육당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신체시의 대표작으로 요한의 「불노리」를 자유형 신시의 명작같이들 쓰고 있지만 정말 작품적으로 이 시들은 엄격하게 평가해 본 것”이 아니다. “우리들에게 무슨 이유인가 첫 번의 것은 곧 명작이라는 미신이 들어 있다.”라면서 “초기의 시나 소설들이 우리들의 창작물이나 전혀 남의 것을 모작한 것이냐에 대하여 흑백을 가려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둘째에 대하여 “1920년대의 신문학측에서 보면 그 과제가 우리 역량에는 험거웠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우리의 주체역량이란 것이 확실하지 못한 약질의 문단이고 보면 이 중요한 시기에 그 근대화를 수행하는 일이 본격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표면적이며 모방적이며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분명치 못한 모호한 상태에서 이행되었다.”라고 지적하였다. 또 셋째에 대하여는 “그 빈곤사의 병인이 어디 있느냐 하는 반문에 대한 해답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가령 정치적인 환경, 근대화의 모방성, 전통의 결여, 주체성의 약체 등 많이 나와 있지만 그 밖에 더 실질적으로 병인같이 보여지는 것은 사상의 빈곤성이라는 점³⁴⁾ 등을 내세우고 있다.

또 김현은 “조연현의 『한국현대문학사』, 그것은 문학작품을 발표기관의 우열에 의해 판단하는 그런 문학사이다. 백철이 사조라는 단선적 측면만을 중시함으로써 문학을 막 자른 것과 비슷하게 조연현은 문헌적 태도를 강조함으로써 마찬가지로 현상에 도달한 셈이다. 사회적 여건과 정신적 배경을 경시했기 때문에 그의 문학사는 잡지 신문 등 발표기관에 지나친 액센트를 주지 않을 수 없게 되며, 작품의 평가에 약점을 드러낸다.”³⁵⁾라고 하여 사회적 여건과 정신적 배경이 배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하정일도 조연현의 문학사는 “‘순수문학론’에 입각하여 씌어진 것으로,

34) 백철, 「한국문학사 서술방법상 문제점—서술방법 및 지향점」, 133~136쪽.

35)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민음사, 1973), 27쪽.

1930년대 후반 일제 파시즘의 중압 아래 탈정치화된 시대적 분위기에서 제기된 순수문학론과 그 연장선 위에 제기되었던 8·15직후의 순수문학론에 그 맥이 닿아 있다. (...) 이 순수문학론은 문학을 변화하는 현실의 역사적 연관 위에서 해명하고자 하는 문학사의 방법과는 어울리기 힘든 점이 있다. 게다가 당시 냉전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우리 근대문학사의 많은 중요한 작가와 작품들을 서술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거나 아니면 그 실상과 의의를 축소 또는 왜곡함으로써 우리 근대문학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해명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³⁶⁾라고 순수문학론과 현실의 역사가 서로 어울리기 힘들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듯 조연현의 문학사 인식은 주체성을 상실하고 문화적 종속주의에 떨어져 불연속적 타율적으로 인식하고, 해방문단 10년 좌우대립의 경험을 극복하지 못하여 문학사를 이원론적 관념론적으로 인식하였다. 이렇게 한국 근대문학사를 불연속적 타율적 이원론적 관념론적으로 인식한 문학사는 임화에 이어 백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조연현에 와서도 끝내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III. 결론

조연현의 「한국해방문단10년사」와 『한국현대문학사』를 중심으로 그가 한국 근대문학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서술했는가에 대하여 그의 ‘문학사관과 인식 방법’, ‘근대성 인식과 시대구분 방법’ 그리고 『한국현대문학사』 서술상의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 정리하여 보자.

조연현의 문학사관을 이루는 근간에는 “대한민국에 충성을 맹세하고”라든가, “조국에 대한 한층더 강한 신념” 등을 내세운 충의적 이념을 바탕으로 대립적, 분리적, 배타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나의 문학에 대한

36) 김재용 외, 『한국근대민족문학사』(한길사, 1993), 51~52쪽.

애정은 서구문학에서부터 생겨진 것”으로 보아 서구에 대한 선망 의식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 또 “시간적인 후진성과 공간적인 미숙성은 한국의 근대적 과정을 구라파의 축소판”이라 하여 불연속적으로 인식하는 이식 문학적 방법과 서지 중심의 실증주의에 의존하고 있다.

근대성 인식에 있어서는 ‘연좌법과 노비제의 폐지’, ‘부녀재혼의 자유’, ‘銀本位 통화제실시’ 등 문학 외적으로 근대성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국한문혼용의 언문일치체의 문장 이것이 갑오경장이 결과시킨 가장 뚜렷하고도 가장 중대한 문화적인 표현이었다.”라고 하면서 문학 내적으로 근대성을 인식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근대성 인식은 임화의 『신문학사』, 백철의 『신문학사조사』 등에서 ‘근대화 즉 서구화’라는 이식문학적 인식을 탈피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그 기점에 대해서는 “갑오개혁이 우리의 근대적인 그 최초의 출발이었던 것은 확실”하다고 한국문학사의 근대 기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1894년 갑오경장 기점을 근대 기점으로 설정한 예는 안학의 『조선문학사』(1922), 임화 「개설 신문학사」(1939~1941), 백철의 『조선신문학사조사』(1947~1949)로 이어졌으며, 조연현에 와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 시대구분 방법은 사회와 문학 현상을 하나로 보는 ‘일원론’을 경계하고 사회와 문학 현상을 분리하는 ‘이원론’적 인식의 근간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조연현의 문학사 인식은 주체성을 상실하고 문화적 종속주의에 떨어져 불연속적 타율적으로 인식하고, 해방문단 10년 좌우대립의 경험을 극복하지 못하고 순수주의에 빠져 문학사를 이원론적 관념론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체로 『한국현대문학사』 서술은 식민지 시대 비평가나 연구자들이 일반적으로 취했던 인식 태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외국 문학사의 사례를 가지고 한국 근대문학의 현상을 해석하고 평가하면서 우리 문학의 전통이나 관습을 무시하면서 문단 중심, 잡지 중심, 최초주의, 공인성에 함몰되어 발생론적 관점에서 각 시기 문학의 기원을 이루는 원천 탐색에 그치고 있어 한국 근대문학사의 실상을 축소함으로써 문학사적 전개과정

을 해명하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참고문헌〉

- 조연현, 「한국해방문단10년사」, 『문학과 예술』, 1954. 6월
_____,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사, 1956.
_____,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 방법상 문제점—서술방법과 정신」 『서강』 제4호
(서강대학교), 1973.12.
- 김시대, “문학사가로서의 조연현”, 『현대문학』 433호, 현대문학사, 1991.11.
_____, “조연현의 문학사 기술방법”, 『한국문학연구』 제15집, 동국대학교 한국문
학연구소, 1992.12.
- 신동욱, “조연현 문학평론의 특성”, 『현대문학』 433호, 현대문학사, 1991.11.
- 양영길, 『한국문학사 인식 어떻게 할 것인가』, 푸른사상사, 2001.
- 이형기, “조연현 문학의 감성의 논리”, 『현대문학』 433호, 현대문학사, 1991.11.
_____, “조연현의 감성논리”, 『한국문학연구』 제15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
소, 1992.12.
- 천이두, “석재 조연현의 문학비평”, 『현대문학』 433호, 1991.11.
_____, “조연현의 문학비평”, 『한국문학연구』 제15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
소, 1992.12.